



도립공원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이 추진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재의 무등산 도립공원 지역에 광주호, 동북호 등을 포함, 무등산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킬 계획이다. 눈 덮인 광주의 어머니 산, 무등산이 광주시가지지를 품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자연·문화경관 훌륭...광주호·동북호 포함 규모 6배 확대”

국립공원관리공단 계획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현재 도립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등산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무등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광주호 및 동북호 등 주변 지역을 포함시켜 공원의 규모를 현재의 30.23km에서 196km로 6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10일 본지가 확보한 국립공원관리

공단의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검토안’에 따르면 무등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연공원상 기준 및 환경부 기준안을 충족시키고 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검토안에 따르면 무등산 일대에는 멸종위기 야생식물로 지정된 산작약 등이 자생하고 멸종위기종인 새매, 황조롱이, 소쩍새 등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 곤충인 상재나비, 왕은표범나비 등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립공원 지정 요건인 자연 경관(각종 나무 군락, 잎

석대, 서석대)과 문화 경관(6개 분야 338건)도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무등산 일대의 국립공원 지정 때에는 광주호와 동북호 등 주변 지역을 포함시켜 현재의 30.23km의 면적을 196km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무등산 일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우선 무등산 가치의 극대화 및 위상 강화로 전국 각지 탐방객들의 발길이 몰려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전망했

다. 또 공원관리 전문 인력 투입으로 자연 생태계 보전은 물론, 공원 훼손지 및 탐방로 복원 가속화 등으로 공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국립공원은 국가 예산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지방 재정 부담이 해소되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위상 강화도 예상된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지자체가 추진중인 무등산 관련 개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며 공원관리사무소 등 인력감축 및 조직 축소 등도 지적됐다. 지난 1988년 전북의 변산반도 도립

▲국립공원 지정 절차 = 국립공원 지정 계획 입안이 이뤄지면 주민설명회·공청회—시·도지사 의견 청취—관련 중앙행정기관 협의—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 계획 입안 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은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면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합 발
“봄의 리아싱” 피 코리아 그랑프리 성공거점
True live in Korea
이승철 콘서트
12월16(일) 오후 7:30 광주영주체육관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의 “브루 라이브 인 코리아(True live in Korea)” 콘서트가 12월 16일 광주영주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지난 2002년 전국 투어 콘서트 이후 4년 만에 연속 개최, 30만명 관객 동원 기록을 세운 이승철은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1985년 데뷔 이래 20년 동안 수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승철은 이번 콘서트에서 데뷔곡 ‘야야’부터 최근 발표한 8집 수록곡 ‘소리치’까지 20여장의 앨범에 담긴 히트곡을 열창할 예정입니다. 맑고 시원한 목소리 이승철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겨울 밤의 콘서트, 라이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생한 감동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 회: **광주일보**
주 관: **MAIN (주)메인커뮤니케이션**
주 원: **한라남도**
합 찬: **민주노동당** **광주광역시** **보해당주주석의사**
대한학생노동조합 **대한학생노동조합광주지부**

공연문의: (062)220-0541, 1644-1216

6자회담 18~19일째 재개

北·中 최종 협의중...정부 긴급대책회의 열어

당초 16일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던 북핵 6자회담이 막판 변수로 다소 늦춰져 18~19일째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의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 계좌 해제 주장으로 지난해 11월 초 중단됐던 6자회담이

1년1개월 여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관련기사 4면>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비공식 브리핑에서 “18일 시작하는 주에 차기 회담이 시작된다는 예상하에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날짜에 대한 협의

가 진행중이지만 의장국인 중국이 이르러 오늘 중 회담 재개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28~29일 베이징 북·미·중 회동에서) 미국이 북한에 건넨 제안에 대한 협의가 그간 미·북, 북-

중 간에 이뤄져왔다”며 “충분한 합의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이 시점에서 회담을 열어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모든 당사국들이 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회담 재개가 임박함에 따라 정부 당국은 주말인 9~10일 잇달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협의했다. 중국은 당초 16일 개회안을 제시했으나 북핵과의 절충이 지연되면서 18일 또는 19일 개회하는 방안을 놓고 북핵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은 지난달 말 베이징 회

동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미·북 양측에 독자 안을 제시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연합뉴스

특별취재팀 165인 기사1만건
남부대학교
www.nmb.ac.kr
42-1241-1114 / 42-1241-5001
새로운 담시기는 대학
진남과학대학
www.chunnam.ac.kr
42-1241-1114 / 42-1241-5001

“일심회 조직원 최소 2명 더 있다”

정치·군사 담당...공안당국 수사범위 확대

공안당국은 일심회 총책임 장민호(44·미국명 마이클 장)씨와 직접 접촉해 지령을 받거나 보고하는 1차 하부조직원 명단에 이달 8일 일괄기소된 이진강·손정목·이정훈씨 외에도 정치·군사 부문을 담당한 A씨와 특정 정당 당직자 명단 등을 장씨에게 꾸준히 넘긴 B씨가 포함돼 있다. 1차 하부조직원들과 함께 구속기소된 최기영씨는 손씨의 하부조직원 이어서 장씨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지 않았으며 각종 정보보고 문건도 손씨를 통해서만 건넨 것으로 파악돼 있다. 10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장씨가 일

심회 조직원으로 포섭해 각종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받는 1차 하부조직원 명단에 이달 8일 일괄기소된 이진강·손정목·이정훈씨 외에도 정치·군사 부문을 담당한 A씨와 특정 정당 당직자 명단 등을 장씨에게 꾸준히 넘긴 B씨가 포함돼 있다. 1차 하부조직원들과 함께 구속기소된 최기영씨는 손씨의 하부조직원 이어서 장씨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지 않았으며 각종 정보보고 문건도 손씨를 통해서만 건넨 것으로 파악돼 있다. 10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장씨가 일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의 환한 웃음,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호인병원
HO-IN HOSPITAL
TEL: (062) 720-1100
FAX: (062) 720-1109

호인병원
HO-IN HOSPITAL
TEL: (062) 720-1100
FAX: (062) 720-1109